

현대·전통... '흥' 축제 예고

무주반딧불축제 D-2... 버스킹 릴레이·안성낙화놀이 등 다양한 장르

올해 무주반딧불축제가 현대와 전통을 넘나드는 '흥' 축제를 예고했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무대가 축제 내내 눈앞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낮에는 화려한 퍼포먼스로 분위기를 압도하는 뮤지컬과 밴드락, 퓨전 등, 난타 벨리댄스와 버블쇼를 즐길 수 있으며 밤에는 마임과 퓨전국악, 풍기타, 현악 3중주, 미술, 저글링 서커스 공연을 버스킹 릴레이로 만날 수 있다.



2일 개막식에서는 가수 이찬원의 무대(오후 8시 30분~ 등나무운동장 주무대)를 즐길 수 있으며 3일(오후 7시~ 등나무운동장 주무대) '무주의 밤'에는 풍악이 밴드가 기다린다. 4일(오후 7시~ 등나무운동장 주무대) '태권도의 날'에는 가수 나태주와 K타이거

즈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8일(오후 7시~ 등나무운동장 주무대) '트로트의 날'에는 가수 홍진영과 임찬 박성현의 공연을, 9일(오후 7시~ 등나무운동장 주무대) '늦여름 밤 반디 콘서트'에서는 가수 김범수와 DK(한대규), 페막식 주 무대에는 윤도현 밴드와 팝페라 가수 고현주 씨가

오를 예정이다. 개그맨 김영철 씨(6일 오후 7시~ / 등나무운동장 주무대)와 스타강사 김미경 씨(8일 오후 5시~ / 등나무운동장 주무대)가 진행하는 반디토크 콘서트도 관심을 끈다. 김영철 씨는 청소년 대상 강의와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김미경 씨는 "꿈으로 성장하고 운명으로 단단해져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무주반딧불축제 관계자는 "유명 아티스트와 함께 하는 공연, 강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의 시간이 반딧불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축제 내내 즐길 수 있는 시간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군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오는 9월 1일부터 9일까지 관내 주요 지역에서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실시한다.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 인지도 향상

진안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 맞아 자기 혈관 숫자알기 캠페인

진안군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오는 9월 1일부터 9일까지 관내 주요 지역에서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실시한다. 심뇌혈관질환이란 급성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하다. 국내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선제적 예방관리가 중요해 질병관리청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과 예방수칙 확산을 위해 매년 9월 1일부터 7일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진안군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 동안 각지에서 건강부스를 운영한다. 부스를 방문하는 주민

들에게는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을 측정해 자기 혈관 숫자에 대해 알려 주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방법을 안내해줄 계획이다. 또한 미각 테스트를 비롯한 영양상담 또한 받을 수 있다. 운영일자 및 장소는 △1일 진안군청 광장 △2일 주천면 생태공원 △4일 진안시장 △5일 농업기술센터 △6일 문에 체육관 △8일 진안을 하나로마트 △9일 북부 마이산 등이다. 송미경 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인지도도를 높이고 건강 습관 개선이 되어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건강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온나라 문서 2.0' 운영 순항

진안군, 안정성·강화된 데이터 행정... 군민 행정업무 향상 기여

진안군은 30일 업무환경 전환을 위해 구축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 문서 2.0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순항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온나라 문서 2.0은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기간 및 결제 등의 업무를 온라인에서 실시간 처리 및 분류하는 범정부 업무관리시스템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4일 오픈해 1개월 가량 운영한 결과 이상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진안군은 앞서 지난 2013년 온나라 문서 1.0을 도입해 운영해왔으나 기

존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업데이트가 불가하고, 'Active-X' 등의 비표준 기술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차세대 시스템으로 업무환경 전환을 추진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 간 구축 작업을 수행했다. 이번 온나라 문서 2.0은 시스템 자원 효율성 강화를 위한 최신 가상화 기술 적용,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등 저비용·고효율 기반의 시스템 환경으로 고도화했다. 사용자 측면에서도 웹 표준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 환경에서 접속할 수 있게 됐고 대

용량 첨부파일(500M)의 대외 발송이 가능해졌으며, 웹 한글 기간기 도입으로 문서를 생성할 때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국제 표준의 개방형 문서포맷 형식인 '.odt'를 적용하고 결재 문서에 키워드/요지를 설정하는 기능을 통해 온나라에서 생성되는 행정문서들을 향후 다방면에 활용 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온나라 문서 2.0 구축을 통해 전자문서시스템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강화된 데이터 행정으로 군민 행정업무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장수군, 민선 8기 1년간 군민과의 약속 이행점검

장수군은 28일 장수군청에서 민선 8기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점검하는 '2023년도 제4차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심의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 간의 공약이행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총 6명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배심원단은 2022년 9월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됐으며 이들은 5개 분야 총 70개 공약이행에 대한 공약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공약이행 추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평가를 민선 8기 출범 중간평가 차원으로 각 공약이행



제4차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심의회

중 탁월 22개, 우수 27개, 보통 20개, 미흡 1개 사업으로 나타내며, 지난 3차 평가에 비해 전반적으로 탁월, 우수 등 긍정 평가가 70%를 차지, 공약 이행이 잘 이뤄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특히 교육·청년분야의 경우 11개 사업이 모두 '탁월'을 받으며 전반적으로 매우 잘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유영수 공약 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장은 "공약 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회의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자체장의 공약이행 이행을 직접 평가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기자

장수군,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 실시

장수군은 30일 관내 지역 아동센터와 어린이집(총 11개소)에 대해 전라북도 본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장수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합동점검반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운행 여부 △운행기록장치 장착 및 작동 여부 △어린이보호표지 설치 및 작동 여부 △어린이보호표지 정상 부착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



고 추후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현원 주민복지과장은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관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환경기술인 교육

진안군은 30일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교육은 환경분야 배출시설 관리 방법 및 개정된 법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지역 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 제고, 개정 법규 및 적용 등 교육을 통한 자율적 환경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진안을 포함한 무주와 장수의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인 60여 명이 참석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분별별 주요 위반 사례 등 환경 오염 발생원 저감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환경시책 추진방향 △환경 관련법 제·개정내용 △환경법 위반사례 및 사업장 조치사항 △대기·폐수 배출시설 관리 등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관리의 중요성을 환경실무자에게 주지시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체적 개선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장수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낙상 예방 교육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위상양)은 29일 장계 노인복지관에서 지역주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낙상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낙상 예방 교육은 어르신들에게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과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 바르게 걷는 법 등을 전문 인력인 물리치료사와 함께하며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은 "어르신들에게 낙상은 늘 큰 위험이 되는데, 특히 노화로 인한 신체 능력의 저하로 노인분들의 낙상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며, "낙상 상황 시 대처 방법과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한 교육은 물론 예방하는 방법을 꾸준히 교육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